

“행동 없는 논리는 관념의 늪일 뿐”

위대한 개혁사상가 다산(茶山)과의 대화

박석무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경세유표》의 저술목적은 바로 오래된 우리나라를 새롭게 개혁하겠다는 뜻이었는데. 나라 전체를 송두리째 개혁하는 것이 쉽지 않아 법과 제도는 그대로 두더라도 공직자들이 청렴한 마음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목민심서》를 쓴 것이고. 어쨌든 행동이 없는 주장은 관념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 나의 철학적 결론이네.”

다산 정약용.

조선시대 영조대왕 시절,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운의 왕자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목이 타다 숨진 해는 말(午)의 해인 임오년(壬午年) 1762년이었다. 그 해는 저 프랑스 대혁명 명의 사상적 모태였던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에밀》이 간행되었던 해이고, 동방의 아침 조용한 나라이던 조선에서는 위대한 선각자 다산 정약용(1762~1836)이 나주 정씨 가문에서 고고의 소리를 울리며 태어난 해였다.

그로부터 180년 뒤 또 다른 말띠해인 임오년(壬午年)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으로 아만과 인류의 치욕인 일제 군국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1942년이었으니 바로 필자가 태어난 해로, 다산이 세상을 떠난 106년 뒤의 일이었다.

다산과 필자는 같은 말띠 생이라는 인연 탓인지, 필자는 30년 가까이 다산사상에 마음이 끌려 시나브로나마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한 인연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대단하게 여길 수 있다.

이제 다산선생 서거 162년, 그러나 아직도 우리 곁에 정신적으로 살아계시며, 철두철미한 개혁이 아니고는 나라는 망하고야 말리라고 외치고 있는 개혁사상가 다산선생과의 말문을 열어본다.

박석무 — 일생 동안 승모의 정에 젖어 정말로 한번쯤 직접 뵈고 여러 가지 여쭙고 싶었

는데, 오늘 뵈게 되어 너무도 반갑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60년도 넘었는데, 지금쯤은 억울했던 유배살이나 반대파들의 모함에 시달리던 생전의 울분을 푸시고 사후의 명복을 누리시고 계시니까?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다산 — 박석무라고. 그래 자네를 한번 만나 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대화가 가능해졌으니 정말로 반갑네. 자네는 60년대부터 나를 연구했고 나에게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까지 받았으니 내가 왜 자네를 잊겠는가.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대해 많은 연구를 했으나, 자네가 번역해 출판했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는 책은 세상의 일반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해준 큰 공로가 있는 책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네. 특히 자네가 번역해서 출간한 《다산산문선》이라는 책에는 나의 자서전적인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이 있는데, 아마 그 글은 자네가 맨 처음으로 번역한 글이라고 여기네. 정말로 고맙네. 자네가 알고 있듯이, 사실 나는 나의 글이 후세까지 오래오래 전해지기를 무척 바랐는데, 그 점에서는 자네의 공이 크네.

그렇다고 나의 억울함이나 울분이 모두 풀리진 않았네. 아니 내가 그렇게 주장했던 나라의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나라가 요즘 같

은 꼴인데, 내가 어떻게 명복을 누리겠는가. 나라 전체가 썩고 병들기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네. 내가 그렇게 목청 돋우면서 외쳤던 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만족하게 저승의 생활을 하겠는가. 하나도 개혁, 둘도 개혁이네. 나라가 온전하게 개혁되어 국민들이 진정한 안락과 복지를 누리기까지 내 개인적인 소망은 성취되지 않았다고 말하겠네.

박석무 — 선생님의 저서는 500권이 넘는 분량인데, 어떻게 그런 정도의 저서를 저작할 수 있었으며, 그 중에서 가장 애착을 느끼는 책은 어떤 것입니까?

다산 — 글썬, 저서의 분량으로야 꽤 많은 편이지. 그러나 나는 책 보기를 매우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생활이 불우했기 때문에 뒷 세상에서라도 나의 뜻을 펴기 위해서는 저술 활동에 생을 걸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일찍부터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저술에 힘을 기울였고, 18년이라는 긴긴 유배살이와 그 이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또 다른 18년의 한가롭던 시간이 있었기에 그만한 저서를 남기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네. 지금 자네들이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분량이 많다고 해서 결코 허튼 책이라고는 없네. 어느 것 하나 심혈을 기울이지 않은 것도 없으려니와, 실학적 논리에 입각하지 않고서, 그냥 소일 삼아 기록한 책이라고는 없네.

그래서 사실은 내 책은 어느 것 하나 애착을 느끼지 않은 것이 없지만, 내가 죽은 뒤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평가했듯이 첫째는 《경세유표》요, 둘째는 《목민심서》일세. 그러나 좀더 높은 평가를 받고 싶은 책으로는 중세사회의 대표적인 주자(朱子)의 사서(四書)에 관한 해석을 뒤엎은 경서(經書) 연구서 둘이네. 그러나 그런 책이야 알아주는 사람이 적으니 안타까울 뿐이네.

박석무 — 그런 점에서는 역시 선생님의 말씀 듣고 보니 명확해지는군요. 역시 선생님의 주저는 경세와 목민에 관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중세적인 성리학적인 논리인 주자학에 반하여 경험적이고 실학적인 논리로 해석하여 근대지향적인 논리를 새롭게 구축한 선생님의 경전해석이야말로 참으로 값진 논리로 여겨집니다만, 요즘 그러한 고급논리에는 감히 누가 접근하려고도 않으니 저희

들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경세와 목민의 논리조차 등한하게 여기는 지금, 그런 것까지 바라기야 하겠습니까만, 세상이 조금 밝아지면 선생님께서 아쉬워하는 논리를 연구할 사람이 나오리라 싶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경세와 목민 및 경전해석에 관한 책들에 그만한 애착을 지니고 계시는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민중적 경학의 논리

다산 — 《경세유표》를 저작한 동기는 오래 전에 밝힌 바 있네. 털끝 하나인들 썩고 병들지 않은 것이 없는 세상을 그대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나는 자나깨나 그러한 세상을 구제할 방법의 모색에 몰두했네. 그에 대한 나의 결론은 국가사회 전체를 개혁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네. 나의 자서전에서 밝혔듯이 《경세유표》의 저술목적은 바로 ‘신아지구방(新我之舊邦)’이었는데, 알기 쉽게 풀어보면, ‘우리의 오래된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겠다’는 뜻이네. 나라 전체를 통째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여기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던 것이 바로 《경세유표》였네.

이 책을 저술하다 미완으로 남기고 급박하게 다른 논리로 저작한 책이 《목민심서》였네. 당시는 내가 유배살이 하느라 강진에 있을 때인데, 개혁의 내용과 방법을 한참 저술하다보니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네. 당시의 모든 여건으로 볼 때, 나라 전체를 송두리째 개혁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개혁이 되지 않는다고 당시의 죽어가는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네. 개혁이 늦어진다고 해도 우선 백성 살리는 방도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현행의 법제도 아래서라도 우리 백성을 살려야 한다”(因今之法而收吾民也)는 생각이 들어서 저작한 책이 《목민심서》였네. 법과 제도는 그대로 두더라도 백성들이 숨이라도 돌리게 하려면, 공직자들이 청렴한 마음을 되찾고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지녀야만 될 것 같아 그런 분야에 역점을 두었네.

경전연구서들이야 설명이 간단치 않네. 성리학이라는 주자학의 논리는 정말로 높은 철학이네. 나도 주자학의 높은 수준에는 여러 면에서 탄복하고 마음으로 존경했네. 그러나 단 한 가지, 거기에 담긴 중세주의, 곧 관념적인 논리

책과 오대리

박 석 무

“역시 선생님의 주저는 경제와 목민에 관한 책임입니다. 중세적 성리학의 논리인 주자학에 반해 근대 지향적인 선생님의 경전해석이야말로 값진 논리입니다. 선생님처럼 명쾌하게 행동철학의 논리를 체계화한 학자는 없다고 봅니다. 선생님의 주의 주장을 실천에 옮기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박석무 이사장

나 신비주의적인 측면은 동의할 수가 없었네. 너무 관념적이고 신비적이다 보니 실행과 실천에서 멀어지는 논리가 되고 말았네.

그래서 나는 주자학의 관념과 신비에서 탈피하기 위해 깊은 사색에 빠졌는데, 그러한 결과 위당 정인보군이 설파했던 바와 같이 '민중적 경학' (民衆的經學)이라는 논리를 발견했네. 그것은 주자가 하늘처럼 높이 떠받들던 '성' (性)만 가지고는 '덕' (德)이 될 수 없다는 논리였네. '성과 행이 있어야만 덕이 된다' (因性與行有德之名)는 실학적인 경학사상을 주장했던 것이네. 나의 수많은 경전연구서는 바로 그 점이 핵심이네. 행동이 없는 어떤 논리나 주장은 관념과 신비의 늪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 나의 철학적 결론이네.

박석무 — 그렇다면 선생님 이전에는 그러한 주장이 없었나요?

다산 — 인간이 타고난 착하고 훌륭한 성품에 대한 논리는 개발되었지만, 성품과 행동이 합해져야만 덕이 된다는 주장은 나의 주장 이전에는 없었지않네.

실천이 없는 철학 걱정

박석무 — 그렇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선생님처럼 명쾌하게 행동철학의 논리를 체계화한 학자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럼 명쾌한

선생님의 철학에 매료되어 선생님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산 — 고맙기 그지없네. 그러나 연구만 한들 무엇하나. 실천이 없는 철학, 개혁되지 않는 나라의 형편, 어느 것 하나 사후의 지금까지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 더욱 걱정이네.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는 그렇게도 기술개발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는데 IMF를 맞도록 기술개발도 하지 못했지 않은가. 그러럼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외쳤지만, 공직자들의 부패는 끊이지 않으며, 법제의 철저한 개혁 없이는 나라가 망한다고 했건만,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안타깝기 그지없네.

박석무 — 선생님 죄송합니다. 지하에서까지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세상 걱정, 나라근심에 노심초사하시는 선생님을 뵈오니 새삼스럽게 선생님의 저서를 읽으면서 느끼던 생각들이 되살아납니다. 선생님에 대한 연구도 더 치밀해야 되겠지만, 선생님의 주의주장을 실천에 옮기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아 지하에서라도 안식을 취하시도록 명복을 빌어드립니다.

다산 — 그래, 고맙네. 더욱 명심할 일은 백성들이 그렇게도 바라는 정치개혁을 완벽하게 이룩하도록 청와대에 내 뜻을 전달해주게.

박석무 —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

